

# 군산시,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

### 영화시장 활성화사업 통해 5개 신규 창업점포 개장식 진행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는 영화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시장 내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5개 신규 창업점포 개장식을 진행했다.

영화시장 활성화사업은 도시재생 선

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보도, 하수도, 아케이트, 간판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장 내 창업, 콘텐츠개발 등을 지원하여 시장을 포함한 원도심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창업자 발굴을 위한 민간전문가와 예비창업자간 멘토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심사를

거쳐 창업자를 우선 선발하여 5개 신규점포가 개장하게 됐다.

또한 기획부터 설계, 투자,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통합형 도시재생모델인 '액티브로컬'을 통해 시장 내 기초조사, 점포 현황, 상권,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해 사업완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장 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자들의 정중바, 타바스바, 수제버거점 개장이 영화시장을 더욱 활기찬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병선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다양한 신규점포가 개장하고, 영화시장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 만큼 방문객들이 시장에 많이 머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립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2019년 사이버 기자단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 군산시, 시민 사이버 기자단 위촉

### 워크숍서 실무 강의

자립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2019년 사이버 기자단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난달 선발전 사이버기자단 12명을 추가 위촉하고 전체 기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협직 라디오 방송작가와 영상 촬영·편집 전문가 강사로 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글 쓰는 법, 글쓰기 꿀팁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영상촬영, 어플을 이용한 편집 등 관련성 높은 실무중심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또 평소 사이버 상에서 글로만 소통하던 기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워크숍 이후 '2019 군산문화재야행'에 함께 참여해 친목을 도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이버 기자단은 지역을 대내외에 알리는 민간홍보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생각과 시각을 담은 기자단의 생생한 콘텐츠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5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7월 문화가 있는 날, 시민들 큰 호응

### 익산예술의전당·소리문화예술회관서 음악 공연

익산시가 7월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달 31일과 해당 주간에 익산 예술의전당과 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한 음악 공연을 선물해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밤 8시 익산예술의전당

아외공연장에서 열린 여름밤 산책 길에 만나는 작은 음악 감상회 산책음악감회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공연은 2016년 익산예술의전당이 첫 선을 보인 기획공연으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산책 나온 시민은 물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즐겼다.

1일에는 2006년 대학가요제 출신 밴드 뮤즈그레인의 따뜻한 위로와 감성 있는 연주 및 노래를 시작으로 2일 싱어송라이터 데이먼과 가수 리아, 3일 흥대풍 밴드가 더위에 지친 관객들에게 시원한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소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지난 31일 수요일 밤 7시 30분 '영화 속 주얼리 클래식'에 '물들다'란 주제로 해설과 함께 하는 스크린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클래식 음악의 전통성과 대중화 사이를 잇는 톡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영화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The Hobbit 호빗', '티파니에서 아침을', 디즈니 영화 '모아나' 등 친숙한 영화 속 OST를 연주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산책음악을 기획한 명성중 주무관은 "동료들과 한낮에 야외무대를 장식할 하며 구슬땀을 흘렸는데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익산시가 7월 문화가 있는 날인 지난달 31일과 해당 주간에 익산예술의전당과 소리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한 음악 공연을 선물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 군산시드림스타트,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드림스타트가 지난 2일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치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규모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 방문해 체험형 진로개발 및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방관, 한의사, 교사 등 전통적인 직업 체험은 물론, 게임개발 프로듀서, 웹툰작

가, 자율주행 전문가 등 미래형 직업 콘텐츠도 함께 체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행복한 미래의 나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밝은 미래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익산시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관광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촌 민박 25개소, 관광농원 4개소, 체험휴양시설 7개소, 물놀이시설 4개소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민박 사업자의 소화기·단독경보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건물·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 숙박위생 청결 여부 점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관리 상태가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시설은 지적사항이 발견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계자에게 시정을 통보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3일과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업별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모집지종은 13일은 조리업, 22일은 제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각 업종별 8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채용 또는 간접채용을 위한 1대1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며 면접비용 지원을 운영해 구

직자들의 취업활동을 도모할 계획이다. 채용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현장면접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행사 당일 기업 부스로 찾아오면 된다.

참여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